

건설협회 도회장 선거 2파전

오인철 태성종합건설 대표·한상준 우림토건 대표 출마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3월25일 춘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1대 회장을 선출한다.

도회는 2일 춘천시 동면 도회 회의

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입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신입 회장 후보는 현재 오인철(59) 흥천 태성종합건설 대표와 한상준(55) 강릉 우림토건 대표(가나다 순) 등 2명으로 알려졌다.

오인철 대표는 도체육회 이사, 흥천군번영회 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흥천세무서세정협의회위원장, 강원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도육상경기연맹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국무총리 표창과 도지사 표창 등도 받았다.

오 대표는 "그간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어려움에 처한 도내 건설 시장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포부



◇오인철후보



◇한상준후보

를 밝혔다.

한상준 대표는 오봉건설 대표 등을 지냈고 중부지방국세청 표창, 산업재해예방 국무총리 표창, 도교육감 표

창 등을 받았다.

그는 "건설시장에서 도회 회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설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업계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해결하는 도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동기 회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기는 오는 6월25일까지다.

정 회장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건전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한 사람이 회장직을 맡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대한건설협회 도회 운영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정동기)는 2일 춘천시 동면 도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설협회 도회 운영위원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정동기)는 2일 오전 도회 회의실에서 제6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회 일정 및 당면 현안 등을 논의했다.